

# 준혁의 알바천국

~구조요원 판~



100cm



 따규@DDuck\_you

# 준혁의 알바천국

~구조요원 판~



100cm



따규@DDuck\_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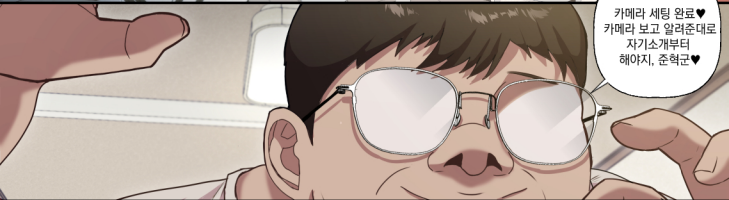
## 주의사항 안내

이 작품엔 스토킹, 강간, 협박 등 다소 자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의 목적이 없습니다.

현실이 아닌 단순한 창작물인만큼 판타지roman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세팅 완료 ♥  
카메라 보고 알려준대로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준혁군 ♥





쿨럭

올럭

하악

꿀렁

꿀렁

팩

오, 오늘부터 후덕씨의 오나홀 남자친구가 된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후덕씨께 러브러브 교미 섹스 당해 허벌이 된 제 구명을 봐주세요...♥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거지, 나는...



체대생인 준혁은  
휴학을 하던 중,  
여름에 구조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  
파도도 약할 것 같아.  
오늘 하루도 힘내자!

비록 3개월 단기로  
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직업인만큼 그는  
구조요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GUARD



하지만 순진한  
준혁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음탕한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잘도 찢룩거리며  
바다를 돌아다녔다.

보잉!

보잉!

블룩!

블퐁!

구조요원씨  
몸이 좋은데?  
몸 관리 열심히  
했나봐~?

앗, 네  
감사합니다.  
체육과라 운동은  
평소에 내내  
하고 있어요.

주물

주물

수영복이  
착진 않아?  
자지가 커서  
수영복 밖으로  
비져나오려하네~

많은 남자들이  
추파를 던졌지만  
섹스 경험이 없는 준혁은  
그것을 마냥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짜 음습한 것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그를 1달 전부터  
준혁을 짝사랑하는  
중인 한 오타쿠였다.

그의 이름은 김후덕.  
후덕은 준혁을  
들리지 않고 따라다니며  
호시탐탐 그의 몸을  
탐하러 들었다.

앗...  
또 수영복이  
엉덩이 사이에  
끼었네. 사이즈가  
역시 작은가?

우호웃...!  
완전 절경...!

배꼽♡



바쁨

바쁨

우웃...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  
어차피 물 속이라 날  
못 볼테니 딱 다섯번만  
활고 도망쳐야지♥

점석

바닷물에  
담궈져있어도  
준혁군의 말랑말랑  
똥구멍, 수컷내음  
초 가득!!♥

츄음

츄음

츄음

갑자기, 아훗!  
무슨...!  
응... 오웃!  
흐웃...!♥

냠

냠

냠





웅!

웅!

웅!

부르르...

부르르...

그마안...!  
히잇...!



거, 거기 아래에 누구 있습니까?

어, 어라.... 아무도 없네. 물고기가 들어간건가?

♡

후덕은 숨진한 준혁을 은근슬쩍 희롱하며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 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의도치 않게  
후덕을 자극하는  
일이 생긴다.

구조요원님!  
혹시 이 근처에  
샤워시설  
있을까요?

여기서 왼쪽으로  
쪽 가신 다음에  
개수대에서 꺾으시면  
유료로 이용 가능한  
샤워실이 나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 네!  
샤워시설  
말이죠?

준혁은 평소와 같이  
구조요원로서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방구석에서  
미연시로만 연애편  
백은 후덕은 그것을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분이서  
여행 오셨나봐요.  
재있게 놀다 가세요!

아하하, 네!  
저희 우점여행 왔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오늘도 고생하세요.

푹

푹푹

...

탁

탁

용서 못 해...  
용서 못 한다고!!

감히 그런 음탕한  
몸을 달고서  
예쁜 여자들이랑  
아울리고 시시덕거려?  
내가 그러라고 지금까지  
내버려둔 줄 알아?

탁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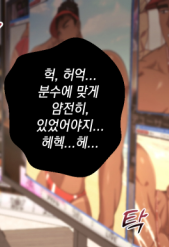
탁

이젠 못 참아!!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분수를  
알려줘야겠어!!



으후후후...  
너무해, 너무해...  
내 사랑도 몰라주고  
... ..



히, 히익...  
분수에 맞게  
암전히,  
있었어야지...  
헤헬...헤...



히익, 히익...!  
우후후후...!!  
또, 싹다잇!



곧 내 걸로  
만들어줄게...  
준혁군.  
헤헤헤헤...

다음 날, 후덕은  
준혁을 바위가 많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그를 포박해  
따먹기로 마음먹었다.

아악-  
너무 아프대  
아이고  
나 죽는다!

도와주세요!!!  
바위 사이에  
발이 끼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바로 갑니다!!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실한 준혁은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후덕의 구조요청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갔다.



이런 바위가  
많은 곳에서  
수영하시면  
위험합니다.

우선 다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간단한 응급처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파적

파

히... ,하이잇...!!  
아, 아흐으...!!  
응, 응오욱!!

응...? 다리가  
덜렁하신  
것 같은...

지

흐아악...!  
아...! 흐...!  
우...  
우으아아!!



응편

응편

흐에..., 에...

적



흐헤헤헤...  
준혁군  
제압완료★  
이거이거 너무  
쉽잖나~

씩

헤... 헤헤...  
처녀 개봉은  
조금 아플테니까  
아쉽지만 준혁군이  
잘 때 뚫어줄게♥

왜냐면 난  
내 미래의  
신부짱에게  
다정한 신사니까!

포

투웅!



짹

어라...  
내가 왜 정신을  
잃었지...?  
머리가 어지러워.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야...

짹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상하다...  
정말 내 몸이  
흔들리고 있는...

파악

파악

저러

에...?

어, 어...?  
이게 무슨...

오후~ 일어나셨군요!  
안 일어나시는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아, 특수 제작해  
인체에 무해한 진기 충격기와  
근육 이완제를 사용했으니  
걱정은 마세요♥

준혁군이 자는 동안  
구역도 벌써 말랑말랑♥  
제 대를 자지에  
치너를 뺏긴 기분은  
어떠십니까, 준혁군?

시, 싫어요...  
이런 짓 그만...

에잇, 지금부터  
싫다는 말은 금지!!  
좋다는 말만 하십시오!

벌칙으로  
교배 프레스!!!♥  
교배! 교배!

쑤욱  
쑤욱  
쑤욱

후럭~

푹

잉잉잉잉잉!!!

잉잉잉!!!

푹

흐극...!

느하음...!  
히, 흐엑!

너, 너무  
깊어혔...!

후후, 준혁군도 참...  
키스해달라고  
이렇게 허까지 내미시고♥  
츄음, 읊...준혁군은  
허도 달군요♥

츄음!  
츄음!

흡  
흡  
흡

츄음

츄음

수, 숨막혀,  
주, 죽을 것 같...

푹

푹



후후, 후우...  
준혁군은 저의  
존재조차 몰랐겠지만  
저는 물론 우욱  
준혁군만을  
바라봐왔답니다.

퍽

크웃!!! 다시  
생각해도 정말  
정말 괘씸하다구웃!!  
애의 애이!!  
이제 다시는 자지따위  
쓸 일 없게 만들어  
드리겠어요!  
흐라아아입!!

꺾겨

그런데, 그런데...!  
준혁군은 암개  
오나홀의 자질을  
가지고서 여성분들과  
회화낙거리다니!

퍽

퍽

하잉

꺾겨

퍽

하

안돼에에엠텐...!!  
그렇게 꺾어누르면  
자지가 달으면  
안되는 곳 까지  
달아...!

시, 싫어엇...!  
이런 변태의 자지에  
강간당하면서  
가버리고실지 않아!  
응오욱!!

오호웃...!  
탱탱하게 바짝 선  
젖꼭지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의가  
아니지요!

저우  
저우

저우  
저우

흥구웃...!!  
젖꼭지는  
내 약점인데...!  
거기까지  
괴롭히면...!!  
♥♥♥

호오욱, 호욱!  
준혁군도 기분이  
좋나보네요.  
구멍이 정자를 부려  
달라고 마구마구  
달라붙으며 저에게  
아양을 부리는군요♥

흐긱!  
♥♥♥

푹!

푹!

아아양  
♥♥♥

이, 이렇게 큰 자지는  
살면서 본 적도  
없어엇!!  
배가 가득 차서,  
아파앗...!

안쪽이 자지에  
쿵쿵 찍힐 때 마다  
고추가 지릿겨려.  
이상해, 이런 거  
이상해애애엿...!  
♥♥♥♥♥♥♥

탁!

탁!

저도 곧 쌀 것  
같습니다!  
같이 스피트를  
내보지요!♥  
호라얍! 호라얍!

히윽  
!!  
♥♥♥

가아아아앗!!!



기분  
좋아야~

푸슌

오타쿠 특급  
농축 정액  
발사!!!

윙크

윙크

부르르

부르르

저질 오타쿠  
자지로  
가버려어어엇  
!!!!!!!♥♥♥



부쿠

부쿠

준혁군의 풍구멍 완전  
부드럽고 말랑말랑...♥  
두툼하고 최고급인 게  
상상했던 그대로...!  
허릿짓을 멈출 수가 없어!  
준혁군의 처녀도 따고  
내 동정도 마여버렸어!

하하

호

오호오호...  
준혁군의 정액  
분출쇼 잘 봤습니다...♥  
역시 제 저질 자지가  
좋았던거지요

이미 자지만으로  
꽉 찼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속궁합은 최고인듯하네요♥  
첫 후장 개봉에  
풍구멍으로만  
가버리다니, 준혁군.  
임케 합격입니다♥

풍렁

풍렁

배 안에  
따뜻한 게  
잔뜩 들어와앗...!



젠장...  
아까 약을  
먹었다고 했지.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

...

엥금

엥금

여기가 아무리  
외갓에도 해수욕장이라  
몇 걸음만 나가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거야.  
조금만 더어...

헤에...  
준혁군도  
참...

퉁

아무리 제  
자지가 맛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며  
저를 유혹하시면  
곤란♥합니다만...



카메라  
셔터 소리!?

썹룩

찰칵!



준혁군이 기절해  
있을 때 준혁군과  
저의 러브러브  
픽짓기 장면은 이미 다  
촬영해두었습니다♥  
저희의 첫 교미  
기념일이니깐요♥



썹룩

너, 너무해...  
왜 이런  
나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웃, 우오오오오옥!!!!  
항상 밝은 준혁군이  
절망해 울먹이는 얼굴!!  
최오오오웃!!!!  
오타쿠의 심금을  
울립니다!!!!  
자지가 볼끈볼끈!!♥

도저히...  
참을 수가...

푹

없습니다  
아아앗!!!!

으오  
으악!

퍼악!

헉헉!

야♡

아, 안대애...!  
계속 거기,  
찌르며언...!  
히이, 히...!  
자지, 너무,  
빨라했...!

푹

안돼, 누가  
제발 도와줘어!

하아!!

하아♡

푹

하아?!

또, 가아...!  
가앗...!! 안대애...!  
아, 이상해요...!  
오줌, 쌀 것 같아...!  
응구웃...!  
망가져엇! 응긔!

푹

싫어,  
또 가기  
싫어엇...!

남자한테  
자지 따위 박히면서  
아무것도 못 하다니...!

안 돼 애 애 애!!!

응~ 아!!  
아!!

응~ 아!!  
아!!

푸싯!

웃호오오...!!  
짐승 교미  
자세로  
또 한 발 더  
발사!!!

흐~  
하~  
하~

조, 좋아했...♥  
뇌가 녹을  
것 같아...

\* LIFE GUA

골럭

골럭

더, 더는...  
무리이...



그로부터  
3시간 뒤,  
해변.

음? 이게  
무슨 소리지?

저 바위 쪽에서  
소리나는 것  
같은데?



거기, 누구  
있...,

까악!!!

어우씨!  
그냥 가자!

뭐야,  
왜 그래?

아 웬  
변태 새끼들이  
돌 뒤에서  
섹스하고 있어!!

우웻!  
더러워!

이것 참.... 우리의  
고미장면을  
들켜버렸네요♥  
준혁군이 너무  
시끄러운 탓이에요.  
입을 막아도 소리가  
다 들려버리니...♥

후후...!  
꿈에만 그리던  
구조요원의 가슴에  
얼굴 파묻고 러브러브  
안싸 섹스 최고옷!  
이 정도면 벌써 임신  
해버리고도 남았지...!

파앙

파앙

하아..

쭈약

쭈

웅찝

으윽

준혁군,  
좋아해요옷...!  
즐근 좋아했습니다앗...!  
마지막 한 발까지  
준혁군의 배 안  
깊숙히 발사합니다앗!!

후윽..



알락

알락

주뽕!♥

휘유...~  
이것 참, 젠들한  
신사답게 절제하려 했는데  
준혁군이 너무 야한 맛에  
잔뜩 싸질러버렸군요♥

똥구멍이 늘어나  
닫히질 않네요.



덕떨  
하이, 핫...  
자지  
조하야♥

자지야,  
더어...♥

덕떨

츄음  
츄음

주뽕  
주뽕

후후. 내일도  
찾아올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저희는 지금 썸 타는  
중이니까...  
우히히하...♥

그래도 아이 만들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준혁군도 좋지요?

그 이후,  
후덕은 매일같이  
찾아와 준혁을 마치  
애인인 것 처럼 대하며  
몸을 요구했다.

헤, 헤헤...  
엄마 쭈쭈  
달콤해...♥

자기도 엄마의  
사랑을 담아  
더 세게  
문질문질  
해주세요♥

아... 아가...  
엄마의 출산 구멍에  
...아가의, 저,  
정자를... ..♥

쭈쭈

문질

문질

후덕의 요구는  
순진했던 준혁에게  
너무 과한 것들이었으나,  
준혁은 그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노우, 노우!!!  
엄마는 아들을 보며  
그렇게 애정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영당이라도 더 천박하게  
흔드면서 아들을  
유혹해야지요!



아. 앓...  
여기선 안되는데...  
누가 들어오면..., 흐핍♥

혜혜, 준혁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엇피하는 거  
사실 즐기지 않나?  
평소보다 조임이  
더 좋다구윳!

후덕은 점점  
대답해져 갔고,  
준혁은 그와의  
섹스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져갔다.

그, 그런 거  
아니예요...!

이러다 저번처럼  
들킬까 봐...

에잇!!  
거짓말쟁이의  
구멍엔  
자지프레스!

아앙  
!!~



그리고, 두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섹스를 한 지 3주쯤  
되었을 때였다.

호호.

쭉.

오.

쭉.

응.

준혁의 통구멍은  
달릴 기미가 없었고,  
이젠 거대한 후덕의  
자지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쭉.

쭉.

멍.

...  
...음.

하지만, 후덕은  
평소와 다르게  
어쩔지 시큰둥한  
기색을 보였다.

준혁은 평소엔  
눈치가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불안한 직감이 왔다.



에....  
왜, 왜 갑자기...  
멈추는...

끈적

끈적

갑자기 흥이  
식었습니다.  
오늘 옛찌는  
여기까지 하죠.



첫만남 이후로  
단 한번도 섹스를  
먼저 그만둔 적 없는  
후덕이었기에, 준혁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저, 정말로요?  
하지만 오늘  
한 번 밖에 안했는데...

!?



그럼. 이만.  
한동안 일이 생겨  
찾지 못 할  
것 같군요.

저녁

웃...

웅얼

웅얼

아니야.  
한동안 해방이니까  
언제 섹스를 해야 할 지  
마음 풀일 필요도 없고  
차라리 잘 된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쿵쿵 뛰고  
불안하지?

질려

질려

후덕은 말했던대로  
그 날 이후로  
준혁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준혁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후덕을  
못 만난 다음 날 부터  
준혁에게 짹짹함보다  
더한 문제가 생겼다.



으윽

벌써 일주일 제  
밤마다 시도때도  
없이 몸이 흥분하는데  
자지만 써서는 도저히  
싸질 못하겠어...

기구까지 사서  
한시간 내내  
쭈시는데도  
어쩔어서 가질  
못하는거야.

이런 장난감 말고...  
좀 더..., 크고,  
뜨거운 걸로  
안쪽을 더 마구  
쭈셔주면 좋겠어.

스삭

스삭

위잉!

위잉!

위잉!

위잉!

후덕씨의 자지라면  
배꼽 아래까지  
치박해서 안이  
망가질 정도로  
마구 우셔줄텐데...

아아.... 후덕씨  
자지에 박히는 걸  
상상하니까 다시 몸이  
흥분하는 것 같아♥

후덕씨에게  
질식 직전의  
키스도 받고  
싫어엇...♥

자지이...  
자지 더 깊게  
박아줘...♥ 안에  
뜨거운 정액도  
잔뜩 뿌려줘...♥

아아앙...♥  
기분 조하야...♥  
가..., 가앗...  
같 것 같아...!!!♥

가아아아앗!  
♥

히,  
하양...!♥

가버려어엇!  
♥!

푸슥!

위잉!

위잉!





뚜르르르-

여보세요?  
...준혁군?

후덕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딩동

끼익

쭈뼌

여어, 준혁군!  
언 일주일만이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은밀하고  
늦은 시간에 갑자기  
보자해서 놀랐답니다.  
우선 들어오시죠.

...실례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하고 왔어요.

쭈뼌



호오...



그, 그러니까  
빨리, 후덕씨의  
크고 우람한 자지이,  
자지 주세요...♥

원하시는대로  
제 암캐구멍을  
마구 쑤셔주세요♥

털

후후..., 이 날만  
고대했습니다.  
인내심 있게  
기다라길 잘했군요.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고작  
일주일이라니.  
이제부터 준혁군은  
제 전용 오나홀  
남자친구인겁니다♥

씩

공짜♥

네에...,  
부디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여보...♥

END♥